

제 35 회 총회 미주자치연회 감독후보자 공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5 회 총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고합니다.

1. 등록 후보자 서류 심사: 2022 년 04 월 10 일(주일) 오후 7 시(동부시간)

- 후보자 이철윤 목사 (미동북부지방 퀸즈교회) -**단독후보**

2. 아래와 같이 제출 선관위에서 요청하고 감독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였습니다.

- ① 등록 신청서
- ② 이력서
- ③ 여권 사이즈 사진 파일
- ④ 경력증명서
- 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 ⑥ 선거공보 원고
- ⑦ 교회 부동산 미주유지재단에 편입 확인서
- ⑧ 부담금 완납증명서 (지방, 연회, 본부, 은급부담금)
-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
- ⑩ 범죄경력 조회 확인
- ⑪ 구역회 후보 추천 결의서
- ⑫ 건강진단서
- ⑬ 이단문제 등에 대한 각서
- ⑭ 정회원 연수 이수 확인서(연수원 발행)
- ⑮ 최근 과거 3년 통계표

3. 후보자가 제출한 구비 서류 및 감독선거등록금 납입을 확인하였고 추가 보충 서류를 요청하여 심사하였고, 후보자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 단독후보자로 인준하였습니다.

4. 단독후보에 관한 선거 규정이 교리와 장정 1603 단 제 3 조 (감독, 감독회장 선거) 제 3 항, **“후보자가 1 명을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해당 연회 선거관리위원회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선포한다.”**에 따라 제 30 회 미주자치연회의 중 감독선거시간에 인사와 공약을 확인하고, 후보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04 14

미주 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주엽 목사

* 별첨: 이철윤 목사의 프로필과 선거공약(자세한 개인 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제 30 회 미주자치연회 감독선거 시간에 인사 및 공약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력 서

	성명	이철윤	연락처	
	생년월일	1962.09.13	비상연락처	
	연급	정		
	주소			
	E-Mail	kmcqlcy@gmail.com		
	최초소속	서울남 연회 관악 지방 샘터 교회		
신 급	연월일	신급(품)받은 교회/연회	주례(담임)목사	
세 레	1963		이영복	
입 교	1980		이영복	
준회원허입	1991	서울남연회		
목사안수	1993	서울남연회		
정회원허입	1995	서울남연회		
학 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전공 과목	학위명
1981.2	대일 고등학교			
1987.02	감리교신학 대학교			
2006	Canadian Theological Seminary		Leadership development	
2020	Wesley Theological seminary		D-MIN	

주요 교회 활동 경력				
연월일	파송된 교회	연급	사역 활동	비고
1990	샘터교회	서리	담임전도사	
1995	청량리교회	정	부목사	
1997	캘거리제일교회	정	담임목사	
2014-현재	퀸즈 교회	정	담임목사	
사회 활동 경력				
연월일	기관명	대표자	주요 업무	비고
1987-1994	영란여중 영란미디어고등학교		교목	

<선거 공보 >

감독선거에 입후보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작지만 건강하고 강한 교회 세우기

한국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 미주자치연회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역의 개체 교회들이 모든 면에서 소형화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교회 내의 중간세대와 교회학교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어 가속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회는 그 무엇보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적 상황을 직시하고 이제 부터는 우리 이민교회가 ‘작지만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연회와 지방회와 개체 교회’가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야할 바른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합쳐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2. 본국의 연회광역화에 즈음한 우리 연회의 현명한 미래적 방향을 정하는 것.

한국은 이제 2023 년 입법의회로부터 시작하여 2025 년 입법의회에서 최종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회광역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추어 우리 미주자치연회는 한국과 많이 다른 미국과 캐나다와 남미에 걸쳐있는 이민교회의 독특한 토양을 가진 목회 선교적 상황을 고려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미주자치연회는 이민교회들로서 견고하면서도 효과적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며 나아가는 연회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심도 있게 토의하고 기도하며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모나고 각진 연회가 아닌 화합을 이루는 동그란 연회

우리 연회는 그 간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과 역사의 흐름의 터널을 통과하며 오늘 까지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모나고 각진 연회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연회의 교역자들과 평신도 여러분들 모두가 연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헌신하였던 필연적 흔적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회로 더욱 세워지기 위해 과거의 그늘과 그림자는 뒤로 하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동그란 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힘을 합하기를 기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연회에 속한 모든 분들과 함께 '작지만 건강하고 강한 교회 세우기'와 '미주자치연회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 그리고 '동그란 연회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동역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철윤 목사.